

# 순천교육청, '코로나 이겨내는 우리의 위(Wee)~로'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덕)은 9월 8일 지역 내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장기 원격교육 실시와 병행하여 학생 심리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순천 관내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46명을 대상으로 영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순천은 현재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주 14일 등교를 앞두고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기학생과 심리적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연계를 비롯한 예방적 측면에서 비대면 상담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순천교육지원청은 자살 및 자해 시도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정신과 치

장기 원격교육 실시와 병행하여 학생 심리 방역 강화 예방적측면서 비대면상담 방향성 대책마련 위해 개최 학생 개개인 특성 분석하여 맞춤형 상담 지원 이뤄져

료를 받은 학생, 학업중단 우려제 참여학생, 게임중독학생, 정서행동심층평가 고위험군 학생 등 관심군 학생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 대상 학생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학생 개개인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상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소개와 비대면을 통한 상담 방법 및 학교별 wee클래스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심리적 위기학생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나눔의 시간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김OO(남산중 상담교사)는 "코로나블루와 같은 우울증 및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정서불안, 게임중독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을 통한 심리지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학교의 사례를 듣고 고민을 함께 나누며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 좋았다."소감을 밝혔다.

이윤덕 교육장은 "온-오프라인 수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서불안, 우울증,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하여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상담 방법과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 한명의 아

이도 포기하지 않는 순천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 진도교육지원청, 학교장과 현장 공감이야기 나누

유·초·중·고교(원)장 영상회의 운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은 8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관내 교(원)장 22명과 함께, 전라남도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임 인사 및 현장 공감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오미선 교육지원과장의 신입교육장 소개를 시작으로 교육장 인사말, 신입 교장 소개, 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 안내, 기타 협의 및 건의 사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보배로운 혁신진도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로서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여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문포 교육장은, 부임 인사에서 "진도가 가진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전문문화 특성을 살린 융합예술 교육, 인적·물적 지원을 공유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민주적 학교문화를 생활화하여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



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은,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 진도 군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

탕으로 늘 소통 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혁신진도교육이 '농·어촌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며 "교(원)장 선생님들께서도 교감있는 눈빛과 관심어린 지원으로, 선생님의 역량이 교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 순천대, '취·창업역량 강화위한 실무교육' 성료

29명 교육생, 매일 4시간씩 CAD실무자격과정 집중교육 이수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최근 13일간 대학본부 멀티미디어실에서 미취업 지역 청년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창업역량 강화 위한 실무교육(CAD 실무자격과정)'과정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다양한 직무에 활용되는 CAD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돕는 과정으로 청년들의 시행하였으며, 대학일자리센터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호응을 얻어 올해 2년 차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CAD실무자격과정 교육은 순천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사전온라인 자가진단과 철저한 방역조치 및 생활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교육생들은 대면수업과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양방향 수업을 병행하여 매일 4시간씩 집중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해당 교육을 바탕으로 오는 12일 교육생 27명이 CAD 실무자격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지역 청년은 "CAD과정 수강의 기회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지역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대학교 양숙향 대학일자리센터장은 "교육 기간 중 순천지역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끝까지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두가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향후 '진로캠프'와 '취업자신감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청년들의 진로·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담양교육청, 교육공무직원과 '소통의 장(영상 만남)' 개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무행정사·급식종사자 대상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은 8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무행정사,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통의 장(영상 만남)을 개최하였다.

이번 소통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선의 어려운 점 등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는 총 58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장과의 자유로운 간담회 형식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힘든 상황 속에 고생하는 교육공무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

김철주 교육장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직종별 교육공무직원과의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담양=박승영기자

